

# 2017 시스코 사이버 중기 보안 보고서를 통해 본 위협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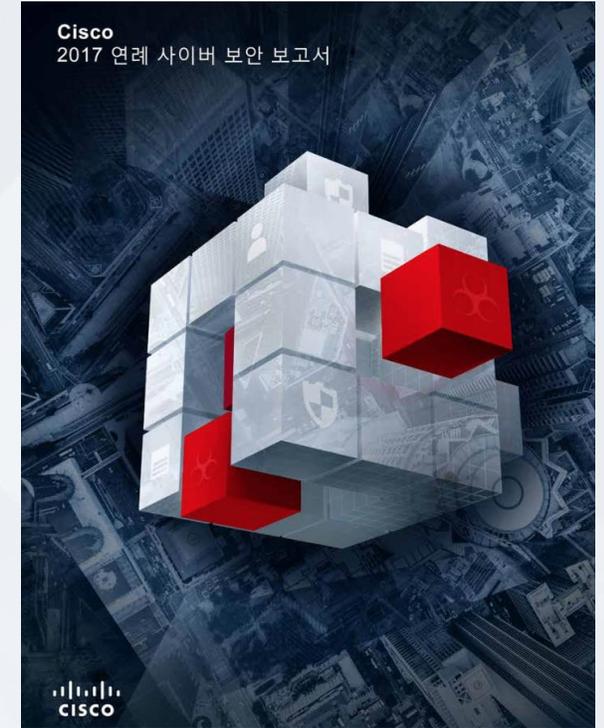
정관진 부장

GSSO APJ Security

2017년 10월 12일



# 보안 위협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는 위협 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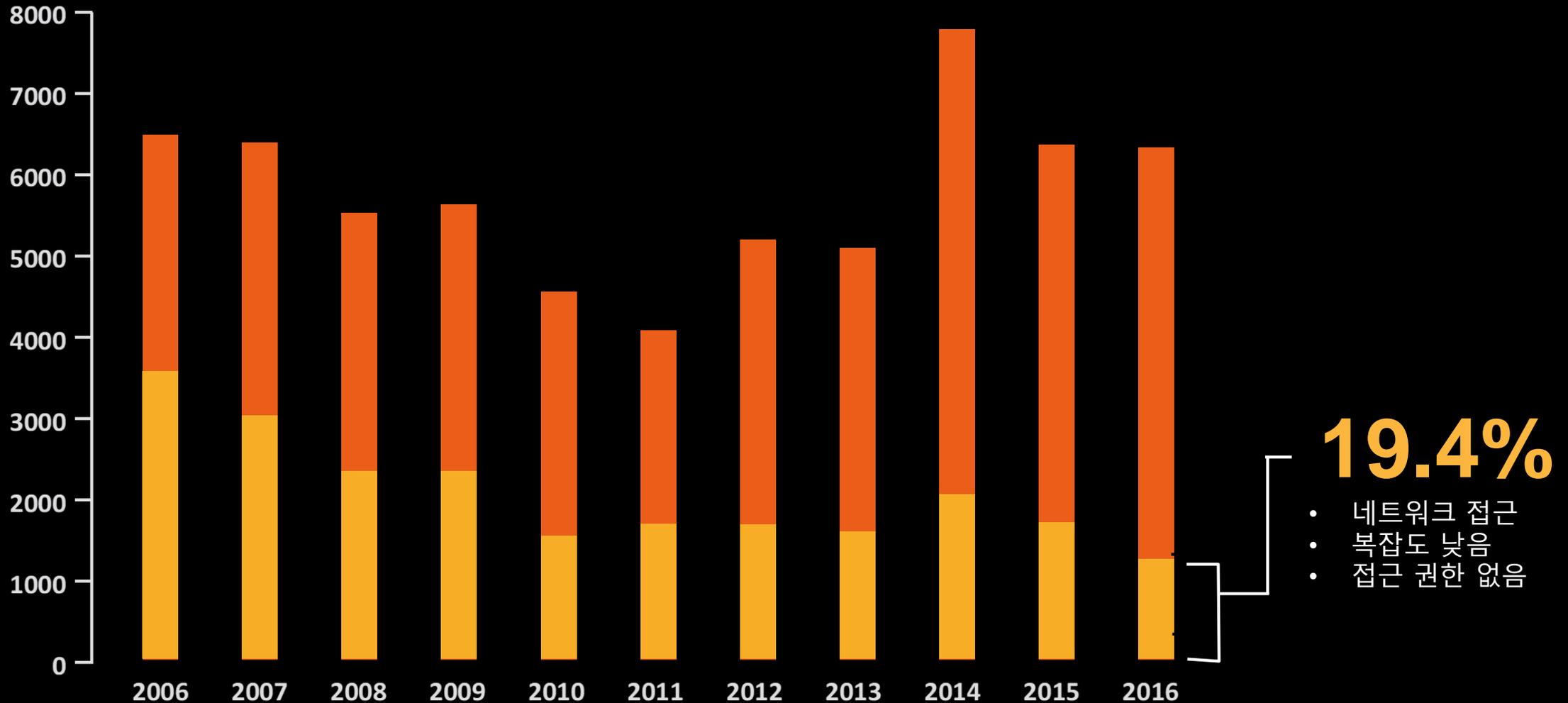


매년 2회 ( 년간, 중기) 보고서를 통해 보안 위협 동향 요약 및 향후 발전 방향등을 예측해 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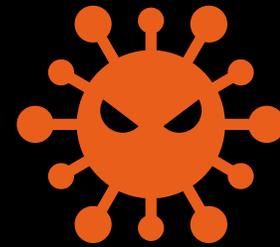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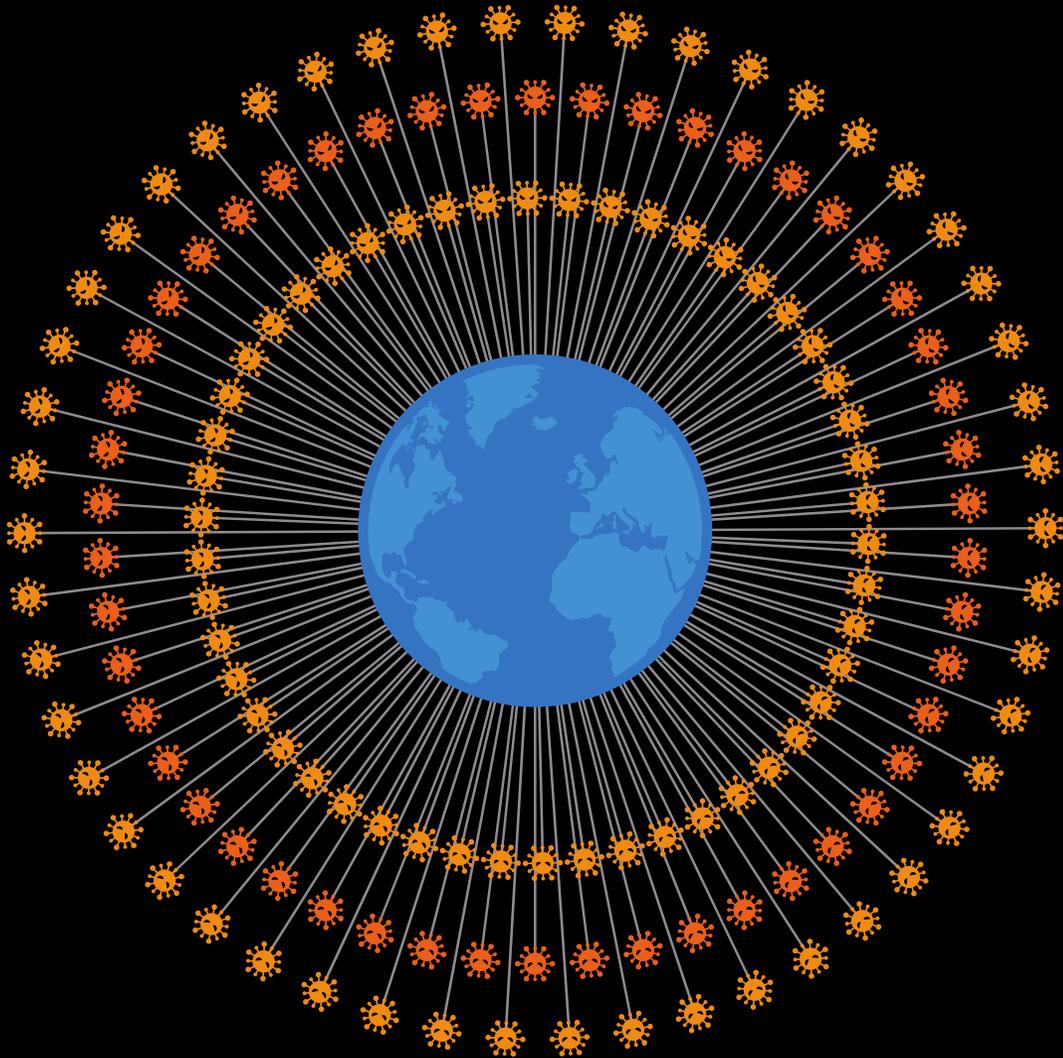
# 2017 MCR 의 주요 내용

- 익스플로잇 키트 감소, DDoS, 이메일, 랜섬웨어 증가(DDoS, 이메일, 랜섬웨어가 최대 난제로 대두)
  - DDoS: 규모와 공격 위협 증가
  - 이메일: 비즈니스 이메일의 악성 첨부 파일로 침해
  - 랜섬웨어: 진화 – 랜섬웨어화된 사물 인터넷(IoT), RasS(Ransomware-as-a-Service), 랜섬웨어 DDoS
- 취약점(워너크라이 – WannaCry 문제 발생, 인터넷 연결 DevOp 서버까지 가세)
- 사물 인터넷(IoT) 보안 위협
- 업종별 IT/OT 통합 문제 대두
- 간소화, 개방성, 자동화가 더욱 요구됨

# 현재의 위협 상황 - 취약점



# 현재의 위협 상황 - 악성코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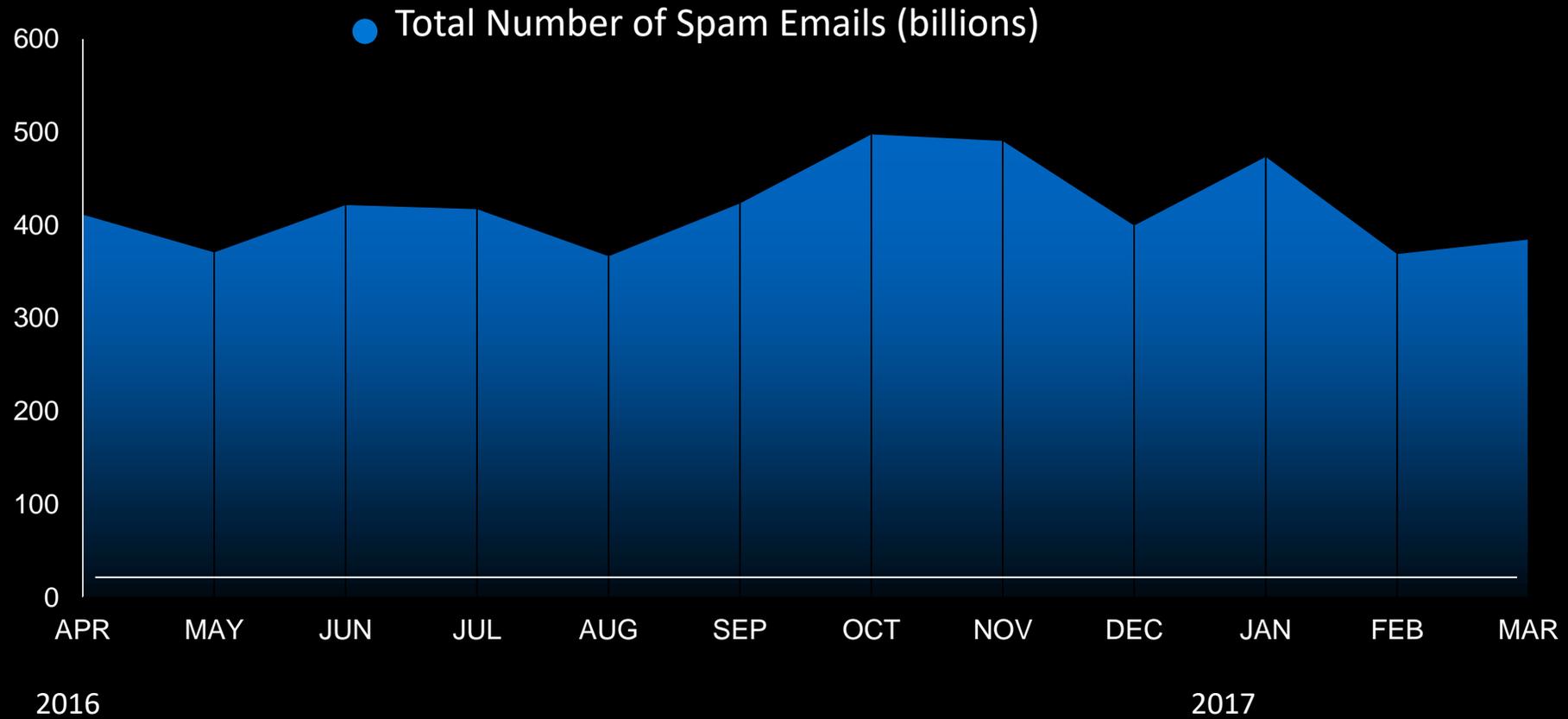


= 10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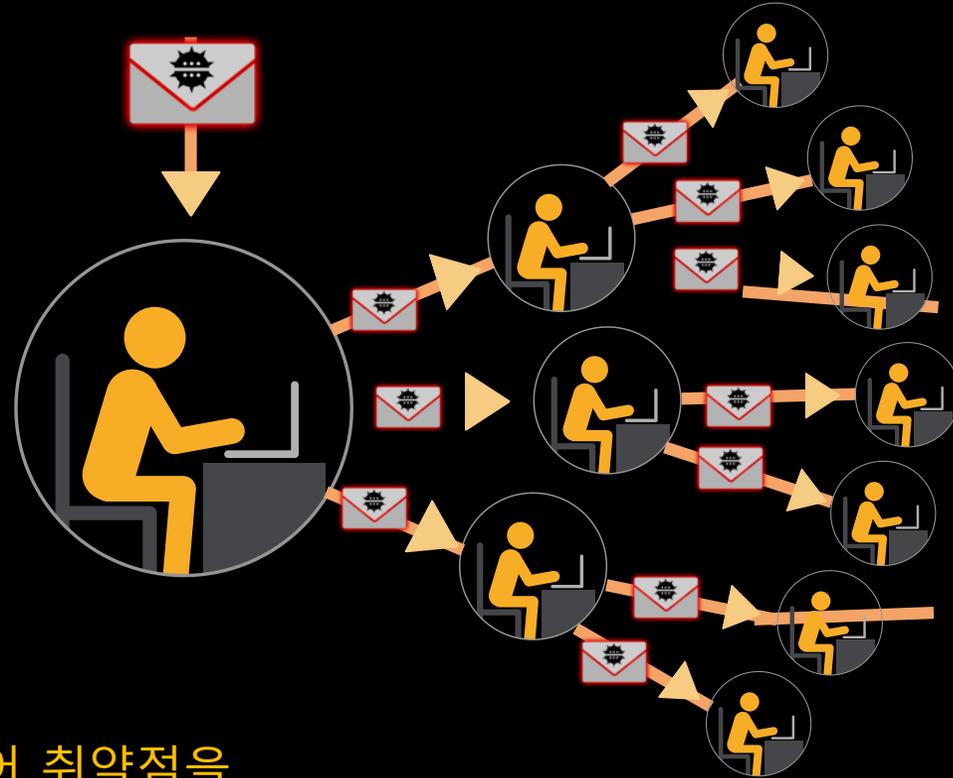
**150 만개**

.....  
매일 악성코드 샘플

# 현재의 위협 상황 - 스팸



# 현재의 위협 상황



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비용 효율적임

# 현재의 위협 상황

197 억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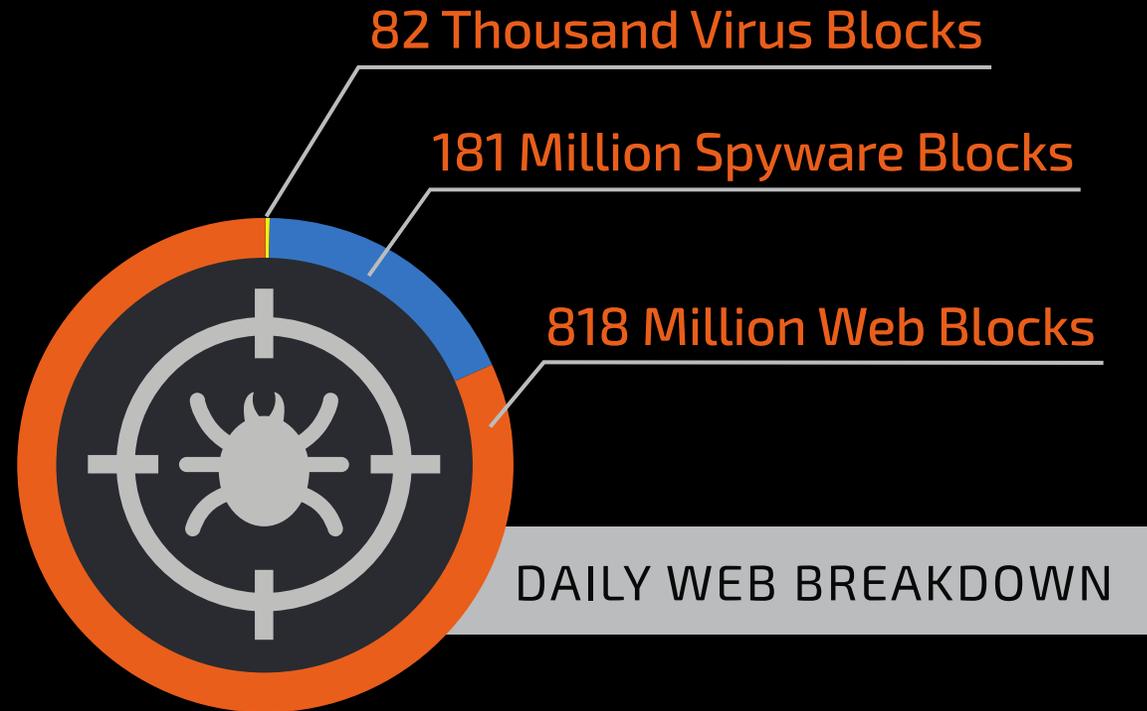
TOTAL THREAT BLOCKS

DAILY

=

72 조

YEARLY



# 영향력 증가

# 기술 및 규모에 의해 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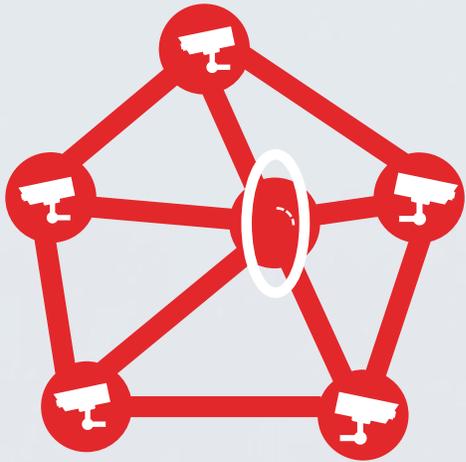
- 기술 발전으로 인해 엔터프라이즈에서 방어해야 하는 보안 경계 확장 및 침해
- 악의적인 행위자는 계속 증가하는 공격 표면(취약점)을 이용
- 보안 팀의 부족한 리소스로 최근 지능적이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사이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

# 현재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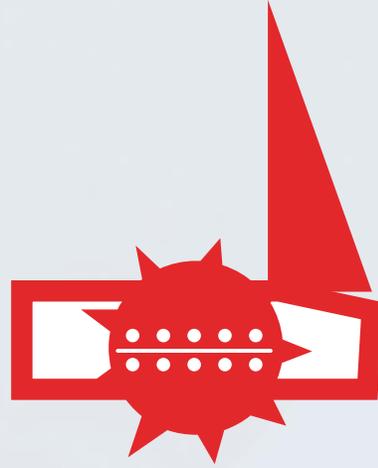
공격에 대한 이해

# 익스플로잇 키트 사용 감소

공격자가 다른 공격에 주력



DDoS



이메일



랜섬웨어

익스플로잇 키트

익스플로잇 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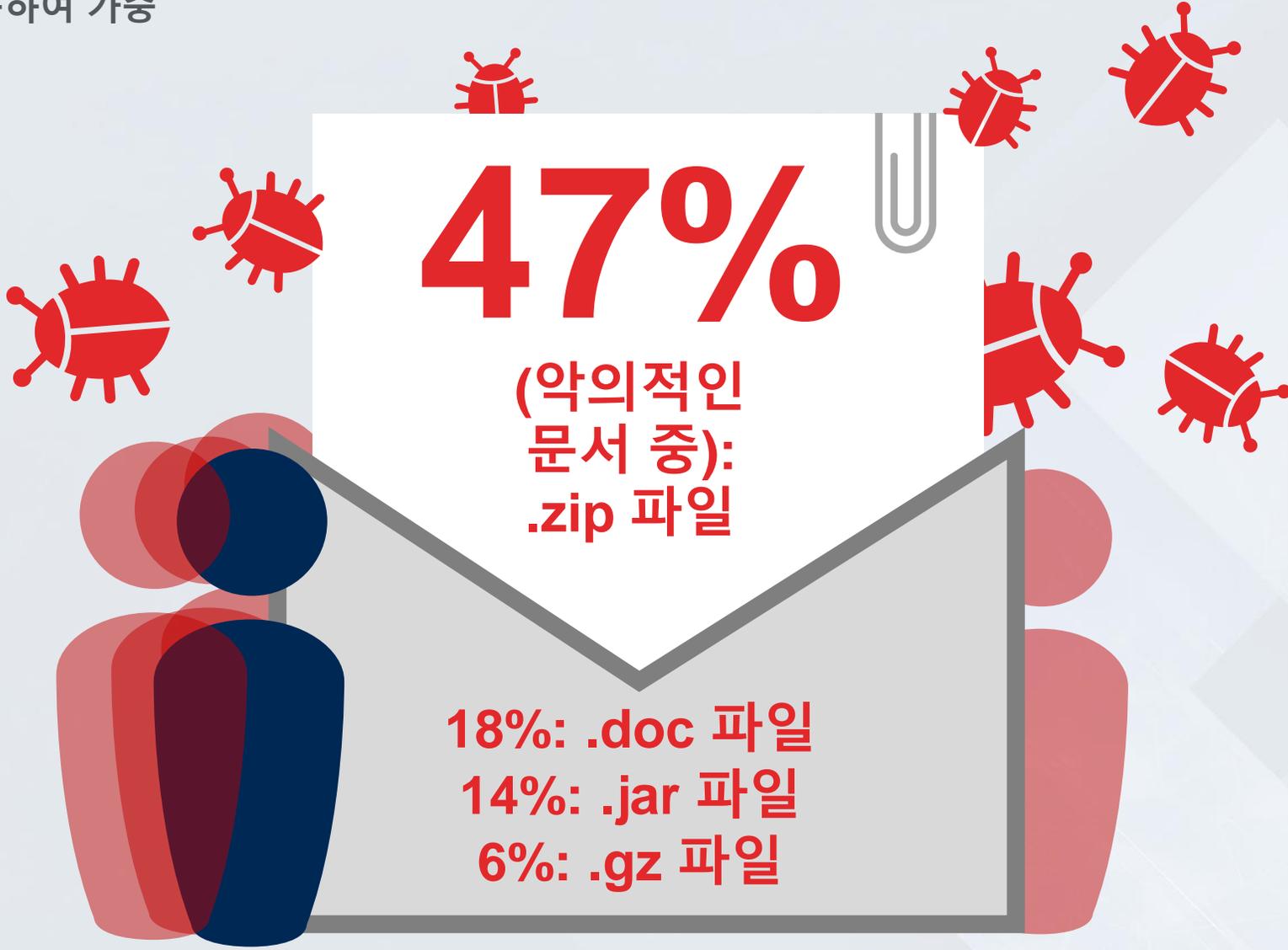
# DDoS

봇넷이 사물 인터넷(IoT) 제어를 위해  
경쟁 및 정상적인 인터넷 운영 방해

- 사물 인터넷(IoT) DDoS 공격으로 인해  
1TBps DDoS 현실화
- 1시간 내에 설정 완료 가능
- 신속한 배포 공격자가 24시간 내에  
10만 개 이상의 감염된 디바이스 봇넷  
구축 가능
- 악성코드의 낮은 탐지율. 악성코드가  
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상주하고  
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하면  
초기화되므로 샘플 검색이 어려움

# 악의적인 이메일

악의적인 문서를 사용하여 가중



47%

(악의적인  
문서 중):  
.zip 파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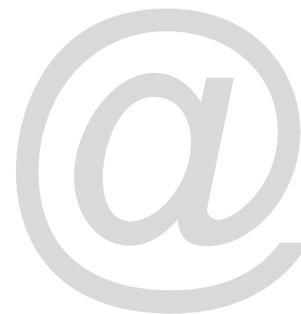
18%: .doc 파일

14%: .jar 파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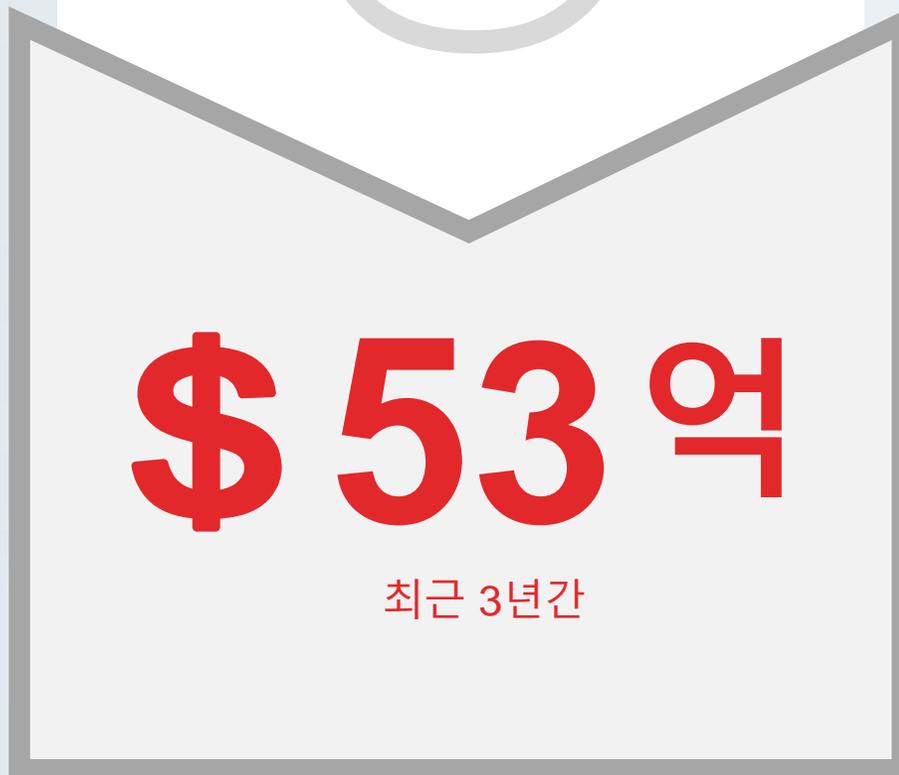
6%: .gz 파일

#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

랜섬웨어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음



랜섬웨어



비즈니스 이메일 침해



# 새롭게 등장하는 악성코드 전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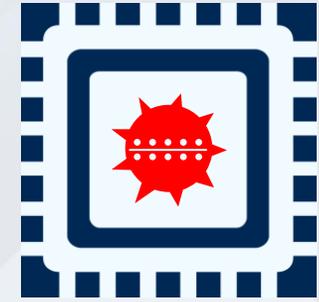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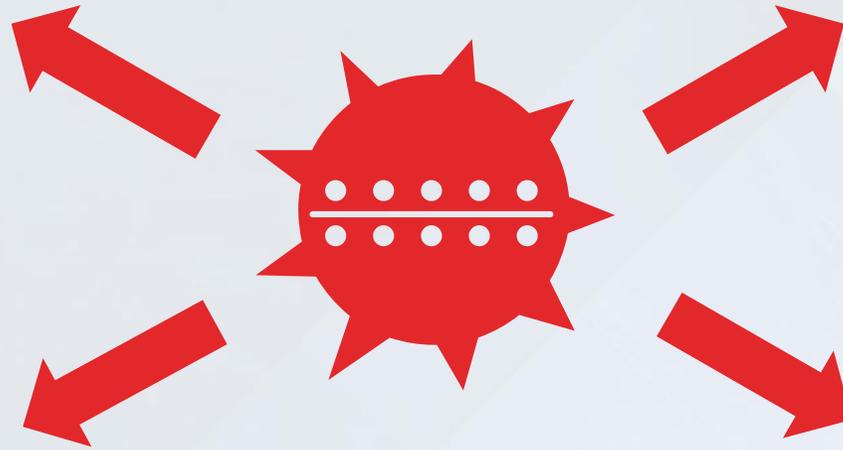
새로운 전술을 통해 악성코드가 계속 진화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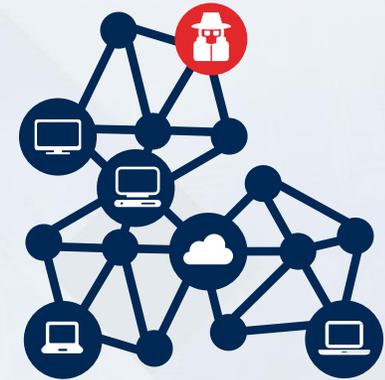
사용자 클릭이 활성화에 이용됨



RaaS(Ransomware-as-a-Service) 증가



파일을 이용하지 않는 악성코드가 대세임



익명의 분산된 인프라가 C&C에 사용됨

# 스파이웨어를 애드웨어로 위장

분류되지 않은 스파이웨어를 통해 조직 깊숙히 침투

- **Hola VPN:** 가장 범위가 넓은 - 표본 기업 중 60% 이상에 영향을 미침
- **RelevantKnowledge:** 직접적인 사용자 동의 없이 대량의 정보 수집
- **DNS Unlocker:** 표본 기업의 월간 스파이웨어 감염 40% 이상 차지



#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

공격자가 DGA의 수명을 늘려 탐지 회피 능력 극대화



40일

너무 느림  
진화 속도 지연

너무 빠름  
쉽게 탐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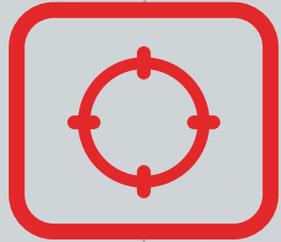


# 인프라 분석을 통한 위협 추적

필요한 입력: 도메인 또는 하위 도메인

공동 도메인

등록자 도메인



1단계

입력 도메인의 생성 날짜 및 등록자 파악



2단계

생성 날짜(도메인 등록) 직후 도메인을 호스팅하는 IP 주소 및 해당 호스팅 기간 파악



3단계

입력 도메인과 동일한 기간 동안 n개 이하의 도메인을 호스팅한 IP 주소 파악



4단계

해당 IP 주소 중 싱크홀 또는 공용 인프라가 아닌 IP 주소 파악



5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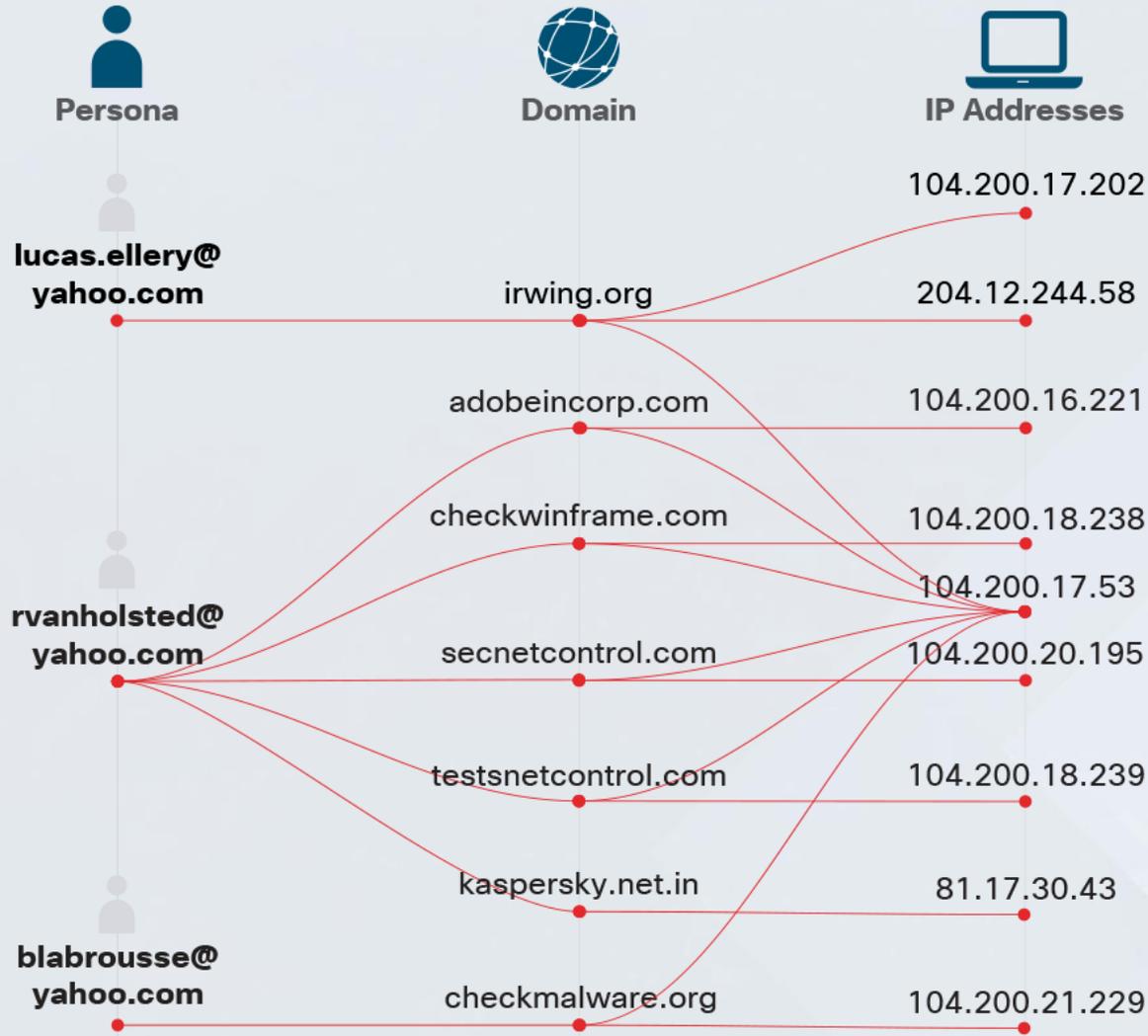
지정된 도메인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IP에서 호스팅된 다른 도메인 파악



6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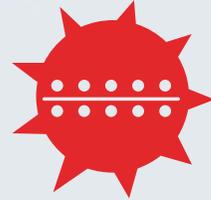
입력 도메인과 공동 도메인의 등록자 파악

# 인프라 분석을 통한 위협 추적 - 사례



- 위협과 관련이 있거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메일주소, IP 주소, 도메인 그룹 기반 추적
- 좌측의 Case 는 (Fancy Bear APT) Bellingcat 에서 제보한 이메일 헤더를 통해 6개의 도메인, 5개의 IP주소, 3개의 이메일 등록자 파악
- 최종적으로 32개 이메일 주소, 180 개 이상의 도메인, 50개 이상의 IP 주소 파악

# 새롭게 등장하는 랜섬웨어 전술



랜섬웨어 코드베이스  
활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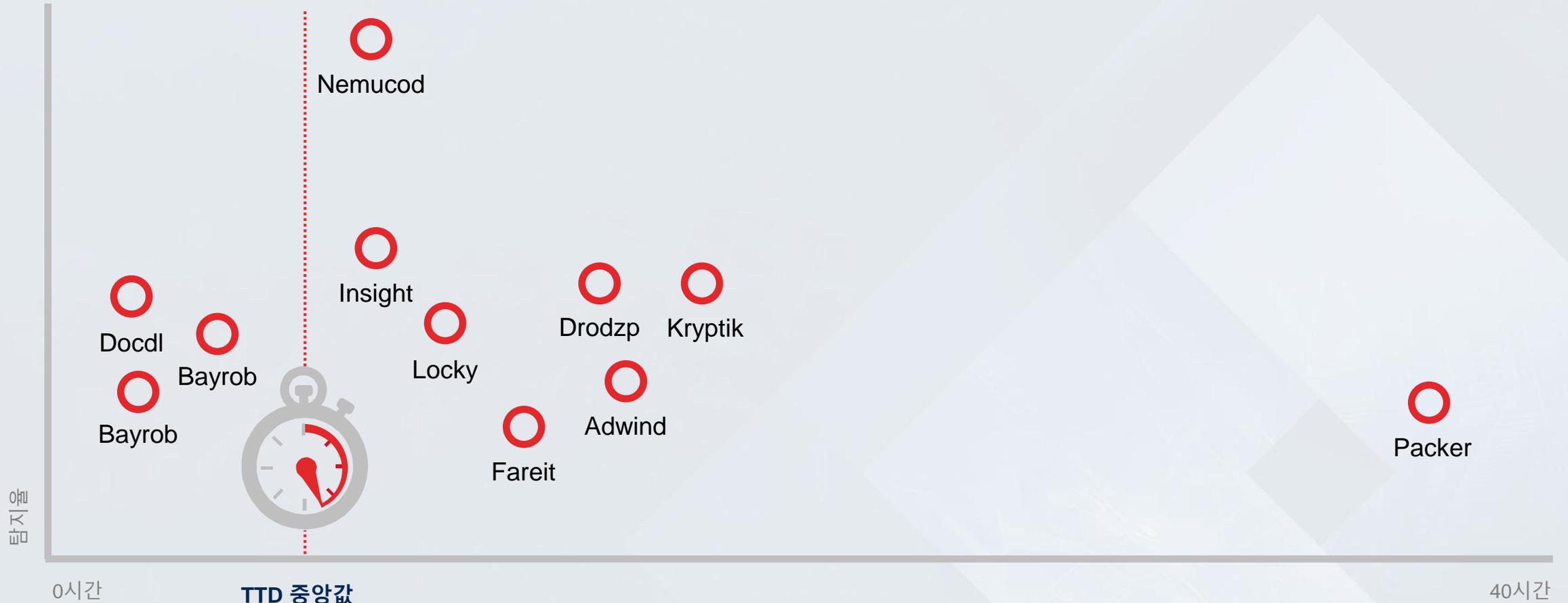
RDoS(Ransom Denial  
of Service, 랜섬  
서비스 거부)



RaaS(Ransomware-as-a-  
Service) 플랫폼이 빠르게  
증가

# TTD(Time To Detection) 감소

탐지시간 중앙값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.5시간으로 단축



탐지율

0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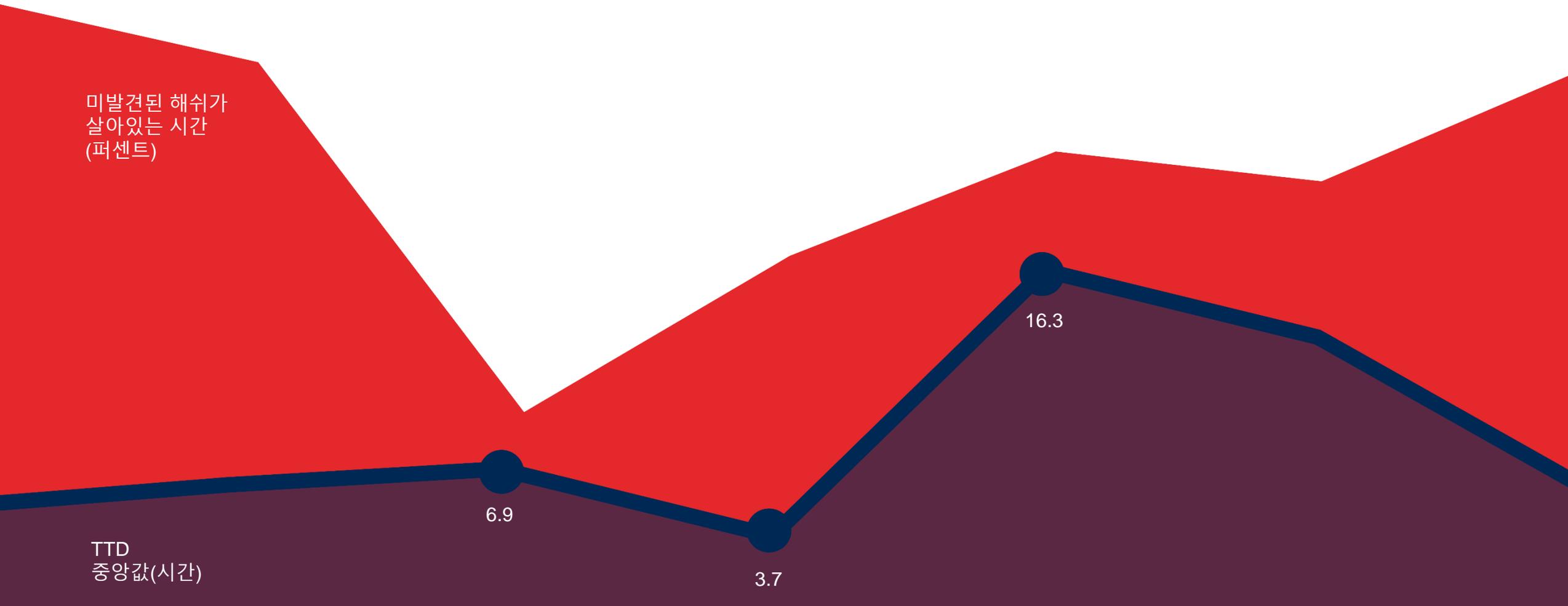
TTD 중앙값  
3.5시간

40시간



# TTE: 새로운 조사 결과(Nemucod)

악성코드 탐지 속도가 빨라질수록 진화 속도도 빨라짐



미발견된 해쉬가 살아있는 시간 (퍼센트)

TTD 중앙값(시간)

11월 2016년

1월 2017년

2월 2017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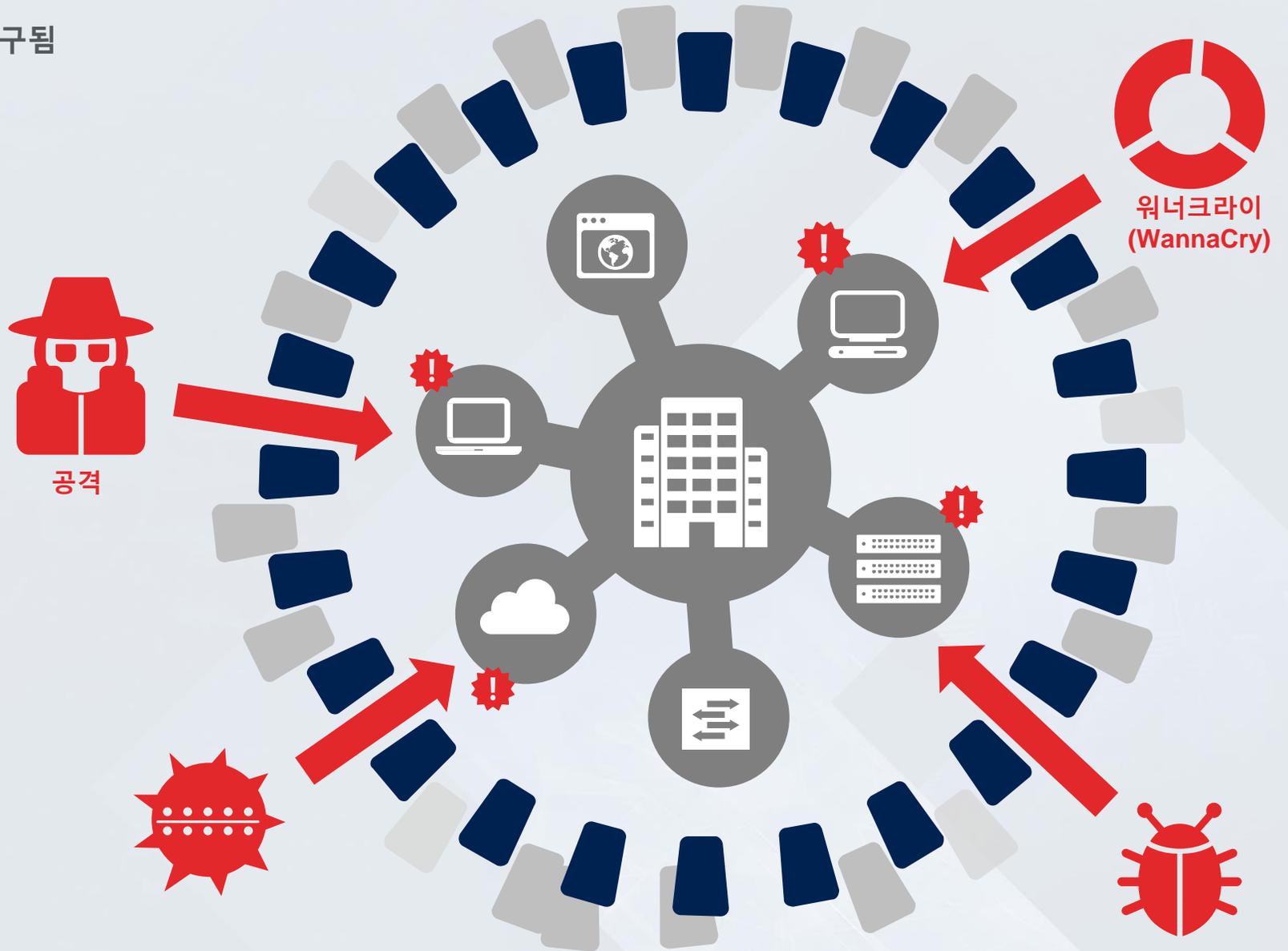
3월 2017년

5월 2017년

# 취약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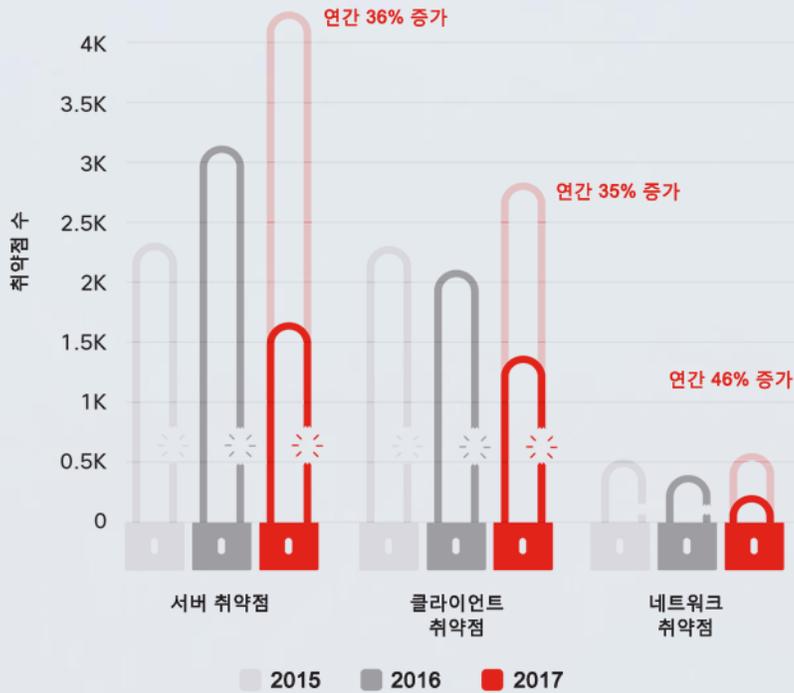
위험을 최소화 하려면 관련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됨

- 벤더는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음
- 경영진에서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함
- 벤더는 공격자가 계속해서 익스플로잇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



# 취약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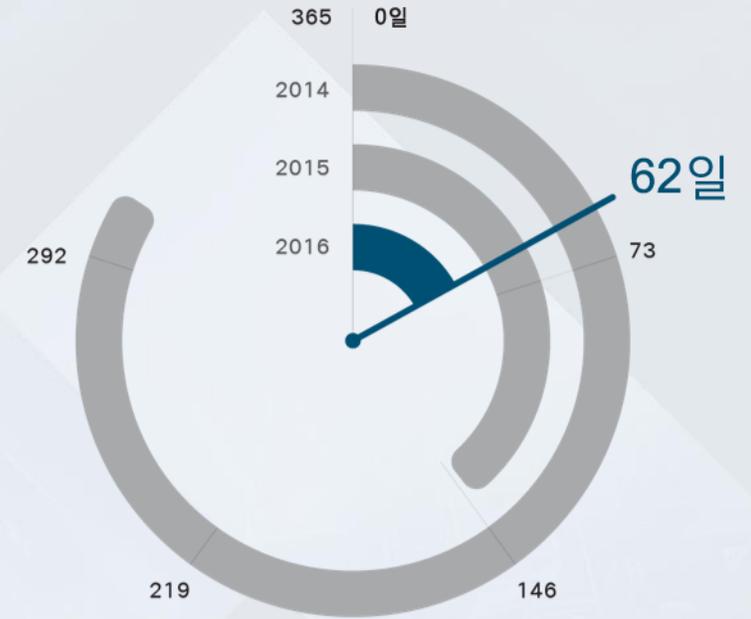
취약점이 빠르게 증가하여 방어하기 어려움



상위 취약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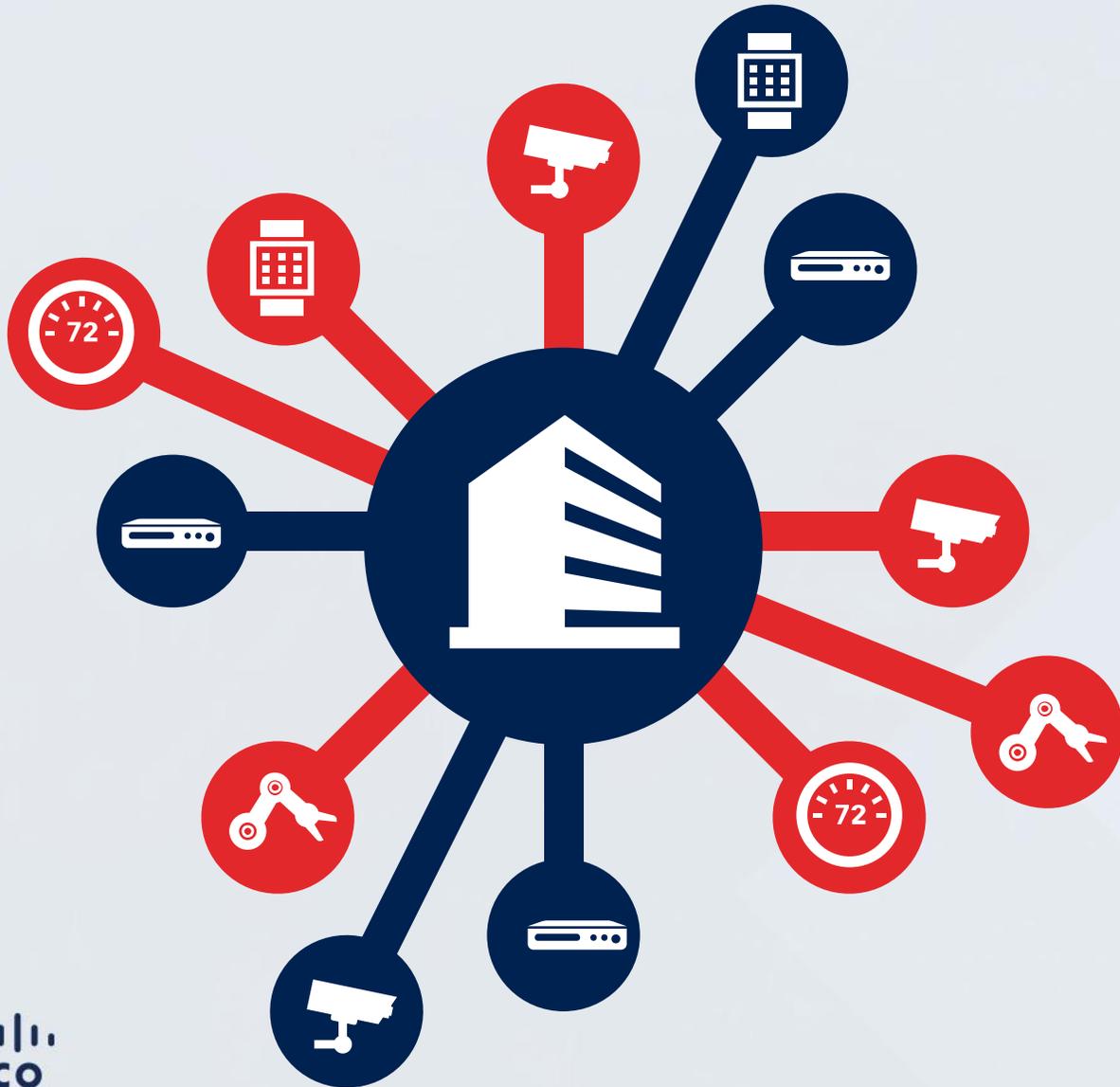
상위 위협 카테고리



플래시 취약점 중 80%를 패치하는 데 필요한 기간(일)

플래시 취약점 출처: Qualy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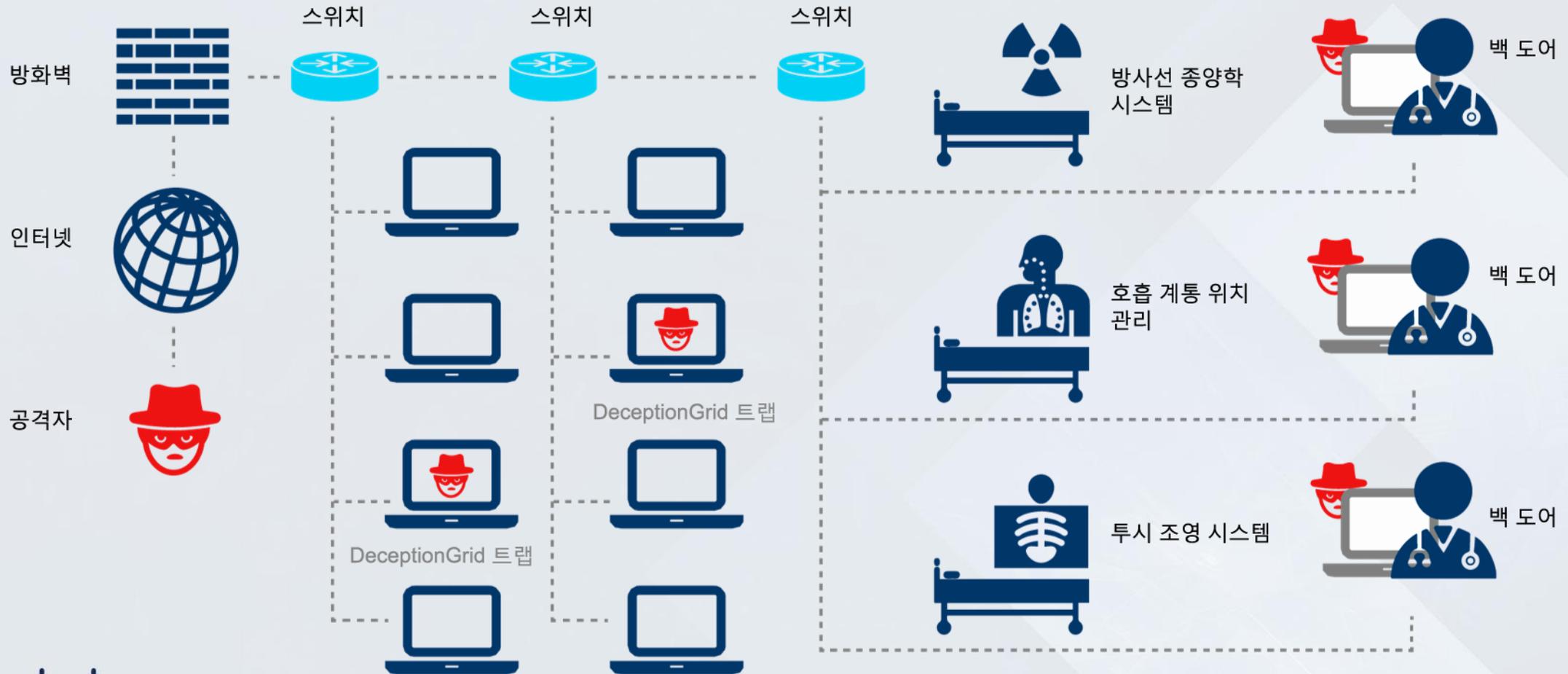
# 사물 인터넷(IoT)



- IT에서 OT로 이동
- 가시성 문제
- 손쉬운 공격 대상
- 데스크톱 보안보다 훨씬 뒤처짐
- 안전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실행

# 공격의 측면 확산

취약한 보안 방식에 의해 조직과 환자가 위험에 노출됨



# 방어자

# 다이나믹 네트워크 가시성

# 40%

알 수 없거나 관리되지 않는  
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서 누락됨

다음 영역의 강화 필요:  
상황화(Contextualization)  
통합  
전문 지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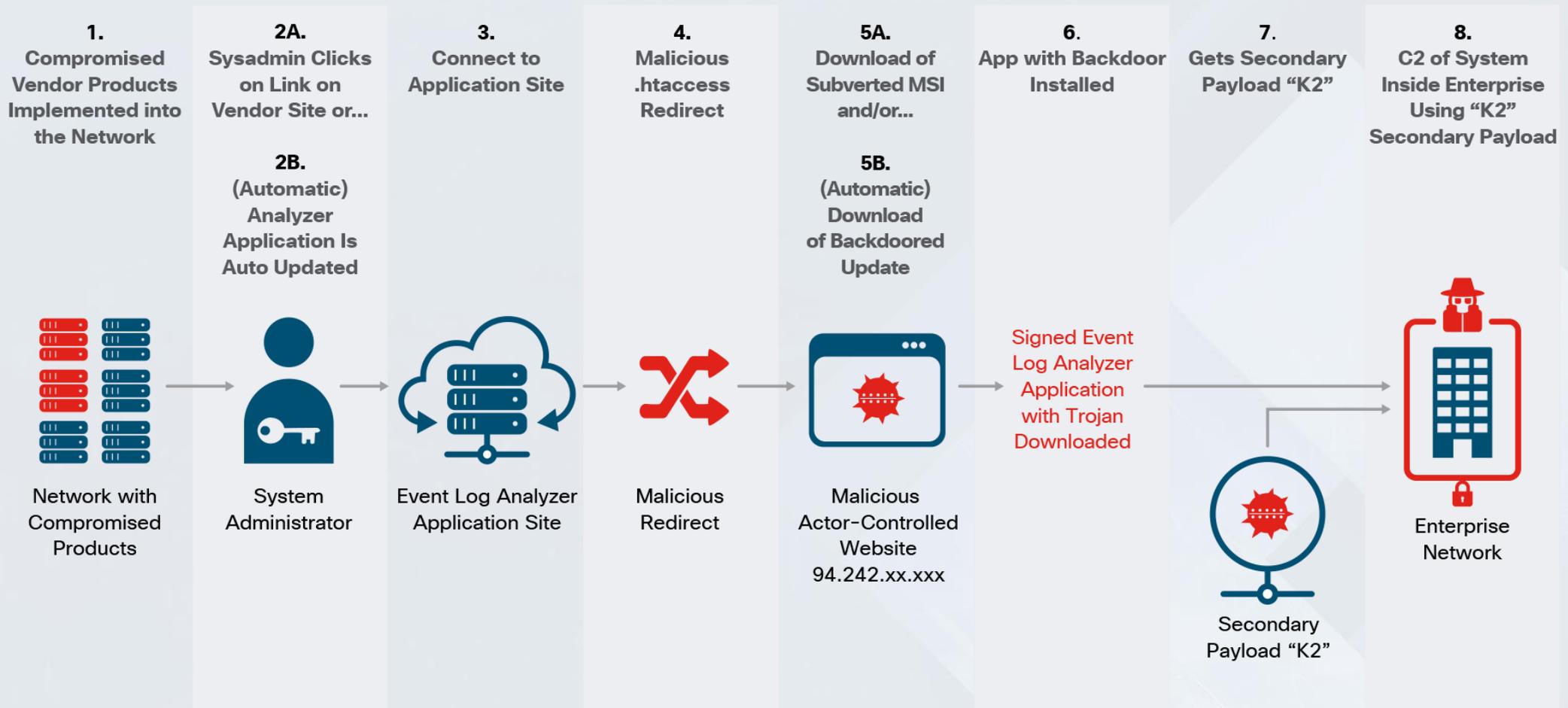
# 노출된 개발 시스템

무방비 상태의 개발 운영(DevOps) 서버의 높은 비율이 심각한 랜섬웨어 위험을 초래함



# 공급망 공격: 한 곳만 뚫려도 전체가 위험

Kingslayer



# 위험한 클라우드

조직의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팀이 해결해야 하는 위험 레벨도 높아짐



## 조직

- 조직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확장됨
- 수백만 명의 직원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용
- 애플리케이션 위험 레벨 상승
- OAuth에서 조직 백본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
- 권한 있는 사용자 수가 너무 많음

## 공격자

- 권한 있는 사용자를 타겟팅하여 자격 증명 도용
- 전체 네트워크 액세스
- 이전에 보안 침해된 자격 증명 활용



# 보안 운영 과제

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 
로그 간의 포렌식 과제

적절한  
구조 제어  
부재

예산과  
인력 부족

알림  
피로

프로세스가 아닌 제품에  
너무 치중

# 산업별 동향

# 업종별 요약

- 보안 침해 완화에 대한 우려
- 고객 데이터 보호, 규정 제약 처리, 최신 커넥티드 시스템과 레거시 소프트웨어 통합이 당면 과제임
- IT 및 OT 통합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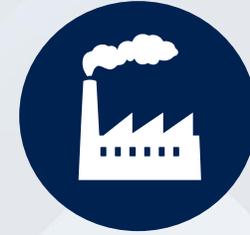
# 업종별 요약 (통신, 공공, 제조)



- 자체 IT 및 생산 인프라 보호가 당면 과제임
- 59% 사이트가 해당 데이터 센터 및 코어 생산 네트워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
- 대규모 비즈니스
- 71%가 관리되는 보안 서비스 제공
- 오케스트레이션이 당면 과제임



- 46%가 보안 침해로 인해 보안이 개선된다고 대답
- 27%가 보안 인력 부족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대답
- 30%가 침투 테스트와 엔드포인트 또는 네트워크 포렌식 툴 사용
- 40%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지만 아웃소싱 시 사내 전문 지식이 증가하지 않음



- 미국 공장 중 80%가 20년 이상 오래됨
-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 방지가 당면 과제임
- 디지털 대격변
- IT/OT 통합
- 40%가 공식적인 보안 전략이 없음

# 업종별 요약 (의료, 운송, 금융)



- 환자 안전 우선
- 보안으로 인한 서비스 속도 저하에 대한 우려
- 통합된 IT/OT 시스템
- 37%가 표적 공격을 우려함
- 34%가 상당한 보안 예외를 적용하고 있고, 이들 중 47%는 보완 방안이 있음



- 폐쇄형 전용 시스템에 구축
- 커넥티드 IP 시스템으로 전환
- 새로운 안전 및 모빌리티 시스템 요구
- 데이터가 에지에 설치되어 공격 영역 증가
- 27%가 SOC를 보유하고 있고, 14%는 새로 구축할 예정임
- 거의 90%가 표준 기관에 참여



- 수익성 높은 표적
- 핀테크와의 파트너 관계로 인해 취약점 증가
- 37%가 벤더의 정보 보안 정책 사용 요구
-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
- 40%가 보안에 미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대답(핀테크, 개발 운영 DevOps, bimodal IT)

# 보안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

## 제약



예산



호환성



보안 인력 부족



인증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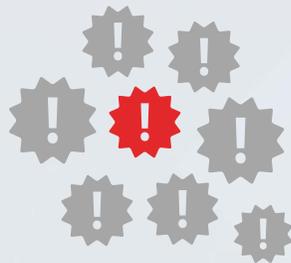
## 당면 과제



벤더 수



제품 수



삭제된 경보

## 영향



시스템



다운타임



운영



금융



손실

# 대응 전략 필요



# 결론

- 보안 침해의 영향력 증가
- 지능화된 위협으로 인한 보안팀의 어려움 커짐
- 경영진의 관심
- 간소화, 개방성, 자동화 필요

Cisco 2017 중기 사이버 보안  
보고서 다운로드

[www.cisco.com/go/mcr2017](http://www.cisco.com/go/mcr2017)

